



# ‘찢담배(Heat-Not-Burn Tobacco Products)’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 국내 적용

이성규<sup>1,2</sup> · 지선하<sup>3\*</sup>

<sup>1</sup>한국금연운동협의회, <sup>2</sup>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의료행정학과,  
<sup>3</sup>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접수일 : 2017년 10월 16일  
수정일 : 2017년 10월 23일  
승인일 : 2017년 10월 24일

\*교신저자 : 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03722  
Tel: 02-2228-1523  
Fax: 02-365-5118  
E-mail: jsunha@yuhs.ac

## World Health Organization’s Recommendation on Heat-Not-Burn Tobacco Products and its’ Application to Korea

Sungkyu Lee<sup>1,2</sup>, Sun Ha Jee<sup>3\*</sup>

<sup>1</sup>Korean Association on Smoking or Health, <sup>2</sup>Institute of Health Car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Health Promotion, Institute for Health Promo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Copyright © 2017 b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찢담배의 등장

담배규제정책이 강화되면 현재 흡연자가 감소하고 새롭게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도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말이다. 하지만 담배규제정책 강화가 담배회사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인 만큼 담배회사는 담배규제정책을 끊임없이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왔다.(1) 그 전략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흡연이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되었던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담배를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상황으로 바뀐 계기가 바로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세상에 알려지고 난 이후이다. 흡연행위가 비흡연자의 건강도 위협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배회사는 간접흡연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담배, 즉 무연담배(smokeless tobacco) 개발로 강화되는 담배규제정책을 극복하려 하였다.

2005년 5월 국제사회는 담배규제강화를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제정하였고, 2017년 10월 현재 전 세계 180개국이 이 협약에 당사국이 되어 협약 속 권고사항을 국내법에 적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약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듯 담배규제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선진국을 중심으로 현재 흡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담배회사는 최근 무연담배를 개발, 확산시켰던

것처럼 “찐담배(Heat-Not-Burn tobacco)”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 찐담배 원리 및 제품현황

찐담배는 영어단어, “Heat-Not-Burn”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쥘련(cigarette)이 담뱃잎을 불로 연소시켜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담뱃잎이 연소되지 않는 수준의 열(350도)을 배터리를 이용하여 발생시키고 그 열로 담뱃잎을 가열시켜 ‘기체(에어로졸)’ 형태로 담뱃잎 속의 니코틴을 흡입하는 형태이다. 기존 쥘련보다는 작은 크기의 쥘련모양 담배를 전자 기기에 끼워서 사용한다. 작은 크기의 담배를 살펴보면 기존 쥘련과 달리 담뱃잎이 찢어진 형태가 아닌 말려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보로 제조사로 유명한 Philip Morris International (PMI)이 ‘IQOS’라는 찐담배를 개발해 2014년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판매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2017년 6월 판매를 시작했다. 2017년 10월 현재 판매가 시작된 지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현황은 없으나 사용자들이 폭증한다는 언론보도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2) 또한 경쟁 담배회사인 British American Tobacco (BAT)에서도 ‘Glo’라는 찐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최근 KT&G 역시 ‘릴’이라는 찐담배 판매를 발표했다.(3)

### 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

흡연자들이 찐담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 쥘련보다는 건강에 덜 위험하다는 인식 혹은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찐담배를 가장 먼저 판매하기 시작한 PMI는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IQOS가 기존 쥘련에 비해 여러 가지 독성물질을 90%까지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다.(4) 이러한 주장 혹은 홍보활동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연구결과 혹은 전문가들의 주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검증 및 논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현재 흡연자들은 이 담배회사의 마케팅 메시지에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둘째는 찐담배가 기존 쥘련에 비해 담배연기, 담배특유의 역한 냄새가 적다는 것이 현재 흡연자로 하여금 찐담배에 관심을 끌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담배규제정책 강화와 함께 흡연자를 바라보

는 사회적 시선이 부담스러운 흡연자들은 찐담배가 기존 쥘련을 대체할 수 있는 혹은 상황에 따라 호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세계보건기구의 찐담배에 대한 입장 정리

찐담배에 대한 우려의 혹은 환영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현 상황에서 찐담배가 자칫 흡연시작 및 계속, 그리고 니코틴 중독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찐담배에 대한 권고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5) 세계보건기구가 제공하는 찐담배에 대한 정보 및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찐담배가 전자담배인가?

그렇지 않다. 찐담배는 전자담배가 아니다. 찐담배는 담뱃잎을 가열하여 니코틴을 만들어내지만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액상을 가열하는 방식이다. 즉,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직접적으로 가열하는 형태가 아니지만 찐담배는 담뱃잎을 직접적으로 가열하는 것이다.

#### 2. 찐담배가 기존 쥘련에 비해 더 안전한가?

현시점에서 찐담배가 기존 쥘련에 비해 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담배회사가 후원한 일부 연구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표준담배(기존 쥘련)와 IQOS의 독성물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찐담배에서 인체에 위해를 주는 혹은 위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독성물질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독성물질에 대한 노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인체에 미치는 위험 자체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없다. 현재로서는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지 않은 객관적이고 독립성이 확보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 3. 찐담배가 간접흡연노출로부터 안전한가?

현시점에서 찐담배의 간접흡연 위험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다.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성이 확보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 4. 찐담배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종합적 권고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은 위험하다. 찐담배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담배 그 자체가 선천적으로 독성이 있고 심지어 자

연상태에서도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찐담배는 FCTC에 따라 다른 담배제품과 동일한 기준에서 규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 세계보건기구 권고의 국내 적용 및 향후 과제

### 1. 찐담배는 전자담배

세계보건기구의 입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찐담배를 '궐련형 전자담배'로 분류하고 있다. 찐담배를 전자담배의 형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담배의 종류를 정의하는 국내법(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담배의 경우 전자담배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찐담배가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시점부터 법상 담배정의에 따라 찐담배를 전자담배로 분류하였으나 해당 제품들이 4개월 정도 판매된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담배회사들은 찐담배가 금연보조제라고 홍보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흡연자 및 일반 국민들은 찐담배를 전자담배의 형태로 분류한 정의, 그리고 전자담배로 명명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찐담배를 금연보조제라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찐담배에 대한 흡연자의 관심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을 수 있다. 찐담배에 대한 담배정의 및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2. 찐담배의 안전성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처럼 담배회사가 후원한 연구결과는 신뢰성이 낮은 만큼 정부주도연구가 국내에 추진 중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찐담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6) 어떤 연구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찐담배가 기존 궐련에 비해 독성물질이 90%까지 감소한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을 하나씩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연구결과가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찐담배를 다른 기존담배와 동일하게 규제

현재 찐담배가 국내에서 전자담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법 상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찐담배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가 국내에 잘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전자담배에 부착되는 경고그림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10개의 경고그림을 붙이는 궐련과 달리 주사기 그림 하나만을 경고그림으로 사용하고 있다. 찐담배 역시 궐련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착되는 경고그림만을 사용하는 것은 규제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찐담배에 대한 경고그림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찐담배에 대한 세금문제 역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처럼 기존 궐련과 동일한 수준의 과세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References

1. Tobacco Industry Interference with tobacco control.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cited 2017 Oct 14]. Available from: <http://www.who.int/tobacco/publications/industry/interference/en/>
2. Lee JY. 3 months after the introduction of IQOS, its' market share increases to 5%, 'fever'. Newsis. 2017 Oct 5. Korean. Available fr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02\\_0000110869&CID=10401&pid=104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02_0000110869&CID=10401&pid=10400)
3. Cho SH. Does KT&G's LiL catch up IQOS. Money Today. 2017 Oct 2. Korean. Available from: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2918074192985&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4. Gilchrist M. Heat-not-Burn Products: Scientific Assessment of Risk Reduction. PMI Science. 2015 Sep 17. Available from: [https://www.pmscience.com/system/files/publications/presentation\\_moira\\_gilchrist\\_gtnf\\_2015a.pdf](https://www.pmscience.com/system/files/publications/presentation_moira_gilchrist_gtnf_2015a.pdf)
5. World Health Organization Tobacco Free Initiative. Heat-Not-Burn tobacco products information sheet.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Oct. Available from: [http://www.who.int/tobacco/publications/prod\\_regulation/heat-not-burn-products-information-sheet/en/](http://www.who.int/tobacco/publications/prod_regulation/heat-not-burn-products-information-sheet/en/)
6. Seo HG. FDA begins harm test of IQOS. Yonhap News. 2017 Jul 10. Korean. Available fr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7/0200000000AKR20170707102700017.HTML?input=1195m>